

호주 외교통상부에서는 11 월 14 일부터 25 일까지 12 일간 호주 현지에서 진행되는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현지취재> 프로그램에 참가할 국내 언론인을 공개모집 합니다.

호주의 문화예술은 역동적이며, 독특한 스타일과 풍부한 원주민 유산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5 년, 토론토대학교의 Martin Prosperity Institute 는 호주를 Global Creativity Index 에서 지구상 가장 창의적인 국가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호주의 창조 산업은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고 뛰어난 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외교통상부는 문화분야 전문기자를 대상으로 창조산업 관련 호주 현지취재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퍼스 (서호주) 및 애들레이드 (남호주) 등지에서 진행될 이번 취재에서 호주의 창조문화산업 관련 기관들을 현지 방문하고 호주와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현장취재 주요 주제는 원주민 문화, 문화유산 보존, 영화 및 공연, 시각예술 그리고 위 분야와 관련된 호주의 혁신, 교육, 관광 자산 등이 될 것이며, 참가 기자 개인적 관심이 반영된 추가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자/에디터/칼럼니스트 등 국내 언론인의 많은 관심 및 참가신청을 바랍니다.

1. 주최: 호주 외교통상부 공공외교국
2. 주제: 호주 문화 및 창조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
3. 선발개요
  - 가. 선발인원: 1-2 명
  - 나. 기간: 2017.11.14(화) – 25(토), 12 일간 (호주 체류기간 10 일)
  - 다. 방문도시: 퍼스, 애들레이드 등 \*방문 일정은 주최측 사정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지원자격
    - 창조산업 (문화/예술/공연/전시/영화/라이프스타일 등) 분야 경력 3 년 이상  
현직 언론인
    - 영어 통역없이 현지 취재 가능자 (통역 제공 불가)
    -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온라인 매체 (영상기자 해당없음)
    - 기사게재 매체 기준 충족시 프리랜서 가능

- 호주 취재비자 발급 가능자 (비자 발급 행정조치는 대사관에서 지원 예정)
- 2017년 11월 14-25일 호주 방문 가능자 (15-24일 취재 예정)

마. 선발방법: 서류심사를 통한 공개 선발

- 주한호주대사관에서 1차 선정 후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최종 결정

바. 선발기준: 언론경력, 관련실적, 지원동기, 참가활용계획, 언어능력 등

사. 접수방법: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MS Word 또는 PDF 파일 형식)

- 이메일 접수 ([신청서 발송후 확인전화 요망](#))
- 이메일: [Claudia.Ryu@dfat.gov.au](mailto:Claudia.Ryu@dfat.gov.au)

아. 접수기간: 2017. 9. 5(화) – 14(목) \*접수마감: 2017. 9.14(목) 오후 11:00

자. 참가자 발표(예정): 2017.10. 9(월) (주한 호주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통보)

차. 관련 문의: 주한 호주대사관 선임공보관 류태경 (Tel. 02-2003-0189)

#### 4. 비용부담

가. 주최기관: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등 공식 소요경비

나. 참가자: 공식일정 외 개인활동 경비

#### 5. 참가자 의무사항

가. 해당 프로그램 공식 참가기간 준수 및 공식 일정 참가

나. 참가자 예비모임 0.5일 (11월 초) 참석

다. 현지 취재결과 기사작성 및 보도

- 귀국후 15일내 기획기자/칼럼 형태로 최소 2건 이상 기사 작성, 소속매체 보도
- 보도시 호주 외교통상부 주최 행사 참가후 보도함을 명시

#### 6. 유의사항

가. 해외취재 프로그램에 선발된 후 참가 포기하여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언론인은 충분한 사내 협의를 거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프로그램 지원시 1사 1인 추천 원칙에 의해 소속사 편집, 보도국장 또는 담당국장의 추천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에 사전고지 없이 지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